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2년 5월 27일(금) 총 3매		
담당 부서 농축산유통과	담 당 자 • 도시농업팀장 김지숙 ☎440-4431 • 담당자 김우년 ☎440-4432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상 ‘해바람텃밭’ 에 나눔과 기부로 풍성함을 더한다

-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옥상 텃밭 시민참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 시민들 직접 수확해 담근 열무김치, 쪽파, 상추 등 취약계층에 전달 -

싱그럽고 화창한 5월, ‘해바람 텃밭’ 에서는 도란도란 이야기 소리가 들린다.

아이들과 텃밭을 구경하는 가족들, 활짝 피어난 꽃을 보며 사진 찍는 어르신, 쉼터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이야기 나누는 정겨운 사람들, 그 사이로 먹을 것을 찾아 바쁘게 움직이는 벌과 새들까지 모두 ‘해바람 텃밭’ 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이다.

‘해바람 텃밭’ 은 남촌농산물도매시장 과일동 3층에 마련된 옥상 텃밭이다.

지난해 인천시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4,716㎡ 규모의 옥상텃밭을 조성하고, 올해부터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편성했다. 지난 4월 신청을 통해 가족·학생·어르신·청년·시민 등 196명의 참가자를 선발했다.

다양한 계층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해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오감만족 해바람 텃밭’,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동아리의 ‘애들아, 해바람 텃밭으로 모여라’,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 가족을 위한 ‘안녕! 해바람 텃밭’ 과 인천 거주 도시청년들도 참여하는 ‘텃밭에서 식탁까지’ 등이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특히 ‘텃밭 정원사’ 프로그램은 도시농업전문가의 교육을 받고 시민들이 직접 텃밭을 가꾸고 작물을 활용해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활동이다. 씨앗을 뿌리는 것부터 관리, 수확에 이르는 전 과정에 참여해 옥상텃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지난 5월 텃밭에서 건강하게 키운 열무와 열갈이배추로 담근 열무김치 약 300kg을 혼자 살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가정에 전달했다.

또 직접 키워낸 쪽파, 시금치, 상추 등 17.5kg을 3차례에 걸쳐 ‘서구민중의집’ 과 ‘새터민지원센터’ 에 전달하기도 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시민은 “채소를 키우고, 수확해 김치까지 담그는 것이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뜻깊은 일을 해낸 것 같다” 며 “앞으로도 참가자들과 함께 다양한 나눔을 실천해 보고 싶다.” 말했다.

남촌농산물도매시장 과일동 3층에 조성된 ‘옥상 해바람 텃밭’ 은 프로그램 참여자뿐만 아니라 시민모두에게 열린 공간으로 ‘넝쿨작물터널’, ‘나뭇잎텃밭’ 과 ‘허브정원’ 등 총 7개 구역*으로 구성돼 있어 이곳을 찾는 시민들이 다양한 볼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 넝쿨작물터널, 나뭇잎텃밭, 열쇠구멍텃밭, 꽃마당, 허브정원, 산야초텃밭, 먹거리숲

<사진> 해바람 텃밭 전경

[붙임1 :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옥상 해바람 텃밭 전경]



[붙임2 : 해바람 텃밭의 농산물 수확 등]

<p>프로그램 참여자들의 텃밭작물 수확 모습</p>	<p>저소득계층 기부를 위해 담근 열무김치</p>